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20년 9월 기준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량, 에버그린 최다



물류정책·산업동향

1. 중국, 베이징·후난·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 신설
2. 머스크, 차이나 플러스 원과 니어쇼어링 전략을 주시
3. 알리바바, 내년부터 자율로봇으로 배송
4. 미주 지역 전자상거래 물류업계, 역대 최고 성수기 전망



공지사항

- 「2020년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명사 스피치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이미 AMP 사용이 법제화되어 있다. 대형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AMP 설비를 확대해 클린포트(Clean Port)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김선종 운영본부장
(2020. 9. 22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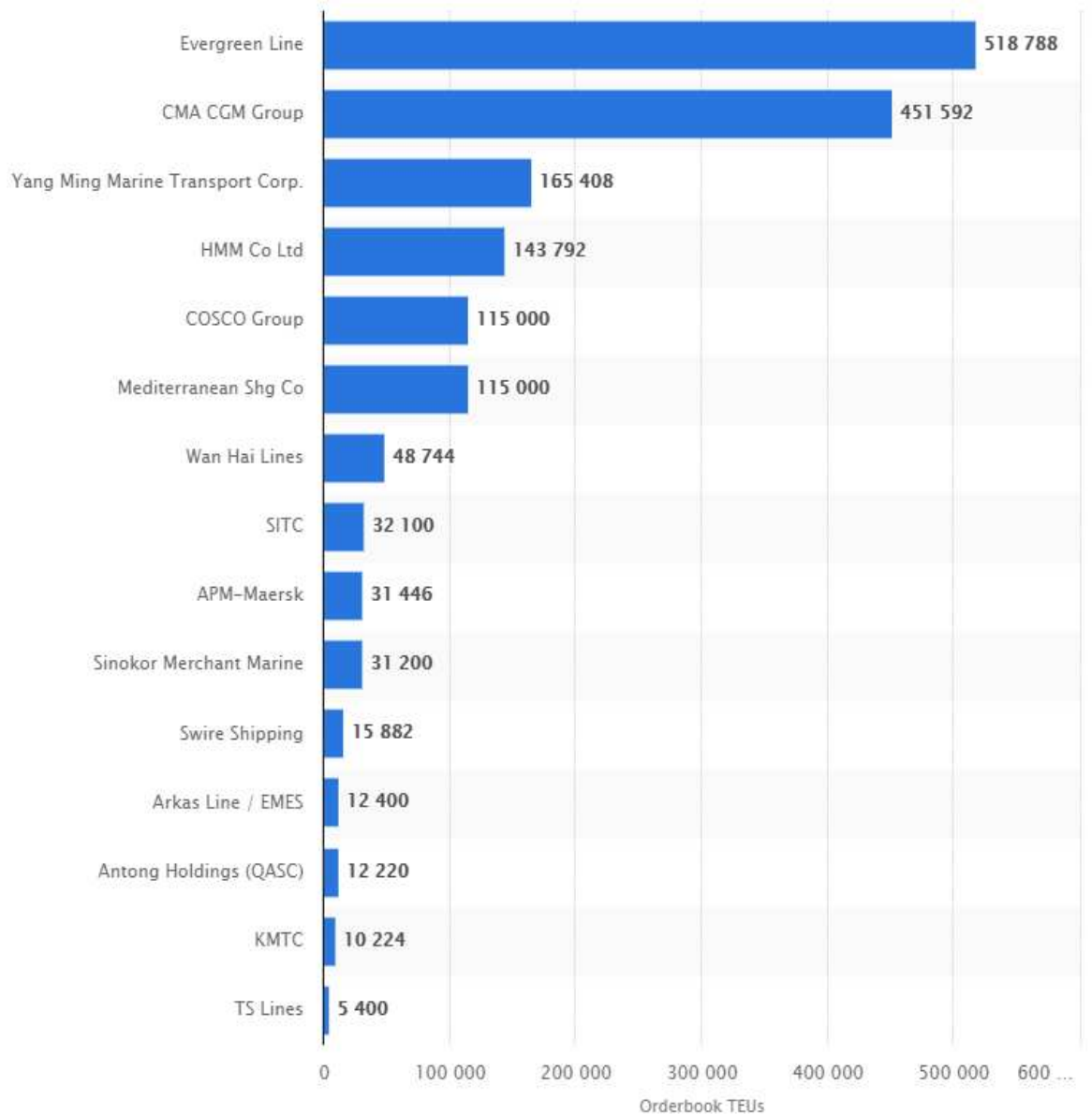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2020년 9월 기준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량, 에버그린 최다

선사별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량 ('20. 9. 3 기준)

(단위 : TEU)



자료 : www.statista.com

- 2020년 9월 3일 기준 컨테이너 선사 오더북(Order book)을 조사한 결과 에버그린이 인도받을 컨테이너선 518,788TEU로 가장 많은 선박량을 기록했으며 CMA CGM, 양밍이 2, 3위로 그 뒤를 이었음
 - 오더북(Order book)은 조선소에 신조 발주했지만 인도받지 못한 선박임



-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우, HMM은 143,792TEU의 선박량으로 4위, 장금상선은 31,200TEU로 10위, 고려해운은 10,224TEU로 14위를 기록함
- 글로벌 1위 선사인 머스크의 신조 선박 발주량은 31,446TEU로 9위이며 장금상선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 09. 23)

이자연 전문연구원
051-797-4685, jylee@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중국, 베이징·후난·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 신설

- 지난 9월 21일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北京),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자유무역시범구 총체 방안(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함
 - 동 「총체방안」에 따라 베이징, 후난, 안후이 3개의 자유무역시범구(Pilot Free Trade Zone)가 신설되었으며,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는 기존 18개(하이난 자유무역항 포함)에서 21개로 증가함¹⁾
 - 상기 3개 자유무역시범구는 모두 총 면적 약 120km²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3개 세부 구역으로 분포되어 있음
 - 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의 발전 목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서비스업 개방 실험지역, 디지털경제 시범지역 등으로 도약하는 것임
 - 후난 자유무역시범구의 발전 목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장강경제벨트 및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와 연계한 국제 투자무역 회랑,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심화협력실행구역 및 내륙지역 대외개방의 거점 조성 등임
 - 안후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장강경제벨트 발전 전략에서 중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혁신의 요람이자 첨단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내륙지역 대외개방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020년 신설 3개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자유무역시범구	지역 구분	면적
베이징 자유무역시범구	과학기술혁신(科技创新) 구역	31.85km ²
	국제상무서비스(国际商务服务) 구역 (텐진[天津] 종합보세구 포함)	48.34km ²
	첨단산업(高端产业) 구역	39.49km ²
후난(湖南) 자유무역시범구	창샤(长沙) 구역(황화[黄花] 종합보세구 포함)	79.98km ²
	웨이양(岳阳) 구역(청링지[城陵矶] 종합보세구 포함)	19.94km ²
	천저우(郴州) 구역(천저우 종합보세구 포함)	19.84km ²
안후이(安徽) 자유무역시범구	허페이(合肥) 구역 (허페이 경제기술개발구종합보세구 포함)	64.95km ²
	우후(芜湖) 구역(우후 종합보세구 포함)	35.00km ²
	병부(蚌埠) 구역	19.91km ²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3개 신설 자유무역시범구의 「총체방안」과 함께 기존 저장(浙江) 자유무역시범구의 확장 방안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기존 저장성 저우산(舟山)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119.95km²의 면적에 Ningbo(宁波) 구역(46.00km²), Hangzhou(杭州) 구역(37.51km²), Jinji(金义) 구역(35.99km²) 등 3개 구역이 새롭게 저장성

1) 기존 18개의 자유무역시범구는 (1) 상하이(2013년 설립), 텐진, 푸젠, 광둥(이상 2015년 설립),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이상 2017년 설립), 하이난(2018년 설립, 2020년 자유무역항으로 전환),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이상 2019년 설립)임.



자유무역시범구에 편입됨

- 저장 자유무역시범구는 2025년까지 투자무역 편리화를 핵심으로 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중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고, 석유·가스 자원의 글로벌 허브 기능과 해운·물류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참고자료 : www.gov.cn(검색일: 2020.9.22)

김세원 전문연구원

051-797-4660, ksw@kmi.re.kr



머스크, 차이나 플러스 원과 니어쇼어링 전략을 주시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교역 구조의 분절화와 생산거점 지역 다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건비 상승, 미중 무역 갈등, 신흥시장 경제 성장,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중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해운 및 물류 전반에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임
- 머스크(Maersk)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²⁾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계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이 확산 추세임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 가운데 베트남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비자 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각광받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비자와 가까워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풀필먼트(fulfillment) 물류 등이 부상함
 - 니어쇼어링은 민첩성(agility) 측면에서 생산과정 통제와 적시(JIT: just in time) 배송 등의 장점이 있음
- 새로운 소비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인도가 부상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인도가 소비자 지출 등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인도 시장에 특화된 전자기기 생산센터 설립 등이 매우 매력적임
- 머스크는 시작과 끝을 잇는 통합 물류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해상운송 구간을 넘어서는 통합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서비스 향로 재편과 투입 선박 조정이 필요함
 - 공급망의 복잡성(complexity)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물류 흐름에서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www.lloydslist.com(검색일: 2020.9.21)

최영석 부연구위원

051-797-4391, yschoe@kmi.re.kr

2) The New Norm of Manufacturing

알리바바, 내년부터 자율로봇으로 배송

- 알리바바(Alibaba)는 내년부터 자율로봇(autonomous robots)을 이용하여 온라인 주문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완전자율주행 로봇인 해당 기기에는 '유능한 당나귀(competent donkey)'³⁾라는 이름이 부여될 예정임
 - 자율로봇은 2021년부터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전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자국의 다른 배송업체들에게도 사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임
- 알리바바의 자율로봇은 하루에 최대 500개의 상품을 배송할 수 있음
 - 이 로봇은 한번에 50개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한 번의 부하 당(per load) 최대 100km를 이동할 수 있음
 - 이는 대략 한 구역 혹은 대학의 캠퍼스를 이동할 수 있는 수준임
- 해당 자율로봇에는 GPS 신호가 약한 곳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딥러닝(deep-learning)⁴⁾ 등의 고급 기술이 장착되어 있음
 - 이를 통해 장애물을 식별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 시 희망 배송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로봇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소비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알리바바의 자율로봇

자료 : Alibaba Group

- 알리바바가 'ラスト 마일' 배송을 위해 대규모로 자율로봇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소비자들은 '디지털화 되는 세상'에서 더욱 빠른 배송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www.retaildetail.eu(검색일: 2020.9.23.)

신수용 부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3) 중국어로는 Xiaomanlv이며, 이를 번역했을 시 '유능한 당나귀(competent donkey)'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음

4) 딥러닝은 무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로, 정지 신호를 인식하고 보행자와 가로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함. 딥러닝은 전화, 태블릿, TV 및 핸드프리 스피커 등 가전의 음성 제어를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함

미주 지역 전자상거래 물류업계, 역대 최고 성수기 전망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미주 지역 전자상거래(EC, e-commerce)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말의 매출 성수기에 미주 지역 EC 물류업계는 전대미문의 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 아마존의 2020년 2사분기(4~6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889억 달러로 분기별 실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필품·의약품 등의 출하량 급증이 매출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독일 DHL의 EC 물류 부문인 DHL e상거래 솔루션(DHLeCS)은 11~12월이 연말 매출 경쟁의 정점으로 EC 물동량이 전년 대비 3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아마존DHL 등의 글로벌 물류기업은 미주 지역 EC 물류 분야에 대규모의 인력 보충과 거점 강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9월 14일, 아마존은 북미 지역 물류망 확대를 위한 10만 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음
 - 아마존은 북미 지역 물류 업무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 이후부터 17만 5천 명을 채용해 왔음
 - 또한 물류센터, 항공운송 지역허브, 배송거점 등 총 75개가 넘는 물류 거점을 개설했음
 - 최근 9월에는 100 여동의 물류 시설을 신설하고 신규 고용하는 인력 10만 명을 투입할 예정임
 - 임금은 시급 15달러 이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천 달러의 입사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DHL은 미국 내 최초의 자사 물류센터 신설 및 자동화 기기 도입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DHLeCS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약 14,000m² 규모의 미국 내 최초 자사 물류센터를 가동하고 시간당 2~3만 개의 상품이 구별 가능한 자동화분류 기기를 도입할 계획임
 -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아베넬 지역에 임시 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신규 직원 900명을 투입할 예정임
 - UPS, 페덱스(FedEx)는 인력 보충을 통한 물류 처리능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UPS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만 명 이상의 임시 직원을 고용하여 성수기 매출 경쟁에 대응할 계획이며, 성수기 종료 이후 다수의 정규직 고용을 예정하고 있음
 - FedEx는 성수기 기간 중에 일부 직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택배 등의 육송을 담당하는 FedEx Ground 수송망 운영을 위해 7만 명 이상 인력을 모집할 예정임

■ 참고자료 : www.marinavi.com(검색일: 2020.9.18.)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해외 한상물류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0. 9. 24(목) ~ 2020. 10. 8(목)
- 개최 목적 :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상 물류기업을 초청하여 국제물류사업 촉진
을 위한 국제물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0년도에는 몽골
에 진출한 한상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프로그램 〉

구분	내용
개회인사	KMI 해운·물류연구 김태일 본부장
발표 1	한-몽 국제물류 협력 방안 (순천향대학교 김홍진 교수)
발표 2	몽골진출 화주기업 의료기 진출사례 (비겐의료기 몽골법인 김상미 법인장)
발표 3	몽골진출 물류기업 진출사례-물류루트 및 미래사업 (서중물류 주지환)
발표 4	몽골 자원물류 해외진출사례 (청조해운항공 강현호 대표이사)
발표 5	몽골진출 물류 진출 및 물류환경 (KYL Logistics 김명진 대표이사)

* 설명회 영상 링크

<https://youtu.be/iykL-HVoigw>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